

## 세이비어 교회 소식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6월 구역예배 안내  
6월 구역예배를 구역 별로 드리시고 구역장님께서는 구역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교인 야외예배 안내  
일시: 6월 24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Bethpage State Park Playground  
(주소: Old Bethpage, NY 11804)
4. 뉴욕 농아인교회 일일차집  
뉴욕 농아인교회 창립 10주년을 감사하며 6월 23일(토)에 일일차집 행사를 진행합니다.(11am - 7pm)  
(장소: 뉴욕 농아인교회, 143-11 Willets Poin Blvd Flusing NY 11357)
5.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우드사이드 구역 에서 준비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17일) 친교는 롱아일랜드 구역입니다.

### 6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6/10		배인순	우드사이드 구역	한순자
6/17	허도행	이경희	롱아일랜드 구역	한순자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 주일설교요약

제목 : 위로자

본문 : 욥기 2장 11~13절

기도제목 : 1.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2. 세이비어 교회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3.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위로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이해와 공감, 소통,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의 친구들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 온 장면입니다. 그러나 욥을 위로하려 온 세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로가 욥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 고난의 종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징계의 의미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이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평안한 자들보다 훨씬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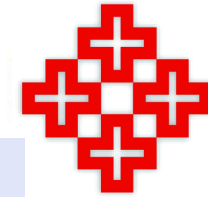
**세 번째로** 어떤 고난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애매한 이유로 고난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당하는 욥에게 세 친구들의 접근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자체로는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데, 수 아사람 빌닷이 욥에게 준 말씀입니다. (욥 8: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에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성구입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런 말들이 결코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욥의 상황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도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겪었는지 아냐? 요즘 애들이 끈기가 부족하다!” “진짜 고생을 안 해 봐서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하는 이런 말과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3장 이하의 모습 보다는 욥에게 위로가 되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절에** “칠 일 칠 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2. 위로받은 욥** 욥은 결국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지 못하고 38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비밀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을 욥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 자체가 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예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3. 나가는 말** -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문제들이 훨씬 더 우리들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험겨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려운 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먼저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자들은 이미 넘쳐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위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지난 주 헌금통계

2018년 6월 10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전서 강해)  기도: 배인순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하늘의 문을 여소서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9번(시편 84편)	
찬 송 Hymn	463장	
기 도 Prayer	김유신 집사	
성 경 Scripture	욥기 2장 11~13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위로자	토요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473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